

알쏭달쏭 Quiz



1 원주의 고대유적을 알아보시다!

이 유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 있는 옛 무덤들로 한국 고대사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양모양 청자, 짧은 목 항아리, 곧은 입 항아리, 금 귀걸이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함께 조가·민어·상어 등 크고 고급어종인 바다 생선의 뼈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적을 통해 우리는 법천리를 포함하는 원주지역이 백제시대로부터 강을 이용한 중요한 수상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주법천리고분군 () 나. 원주법천리사지 ()

2 불교의 중심지 원주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원주에 많은 사찰(절)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적막감을 주지만, 남아있는 절터의 규모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빈곳을 채워 원주를 대표하는 절터 3곳의 이름을 완성시켜 주세요. (☞지도와 설명패널을 잘 보시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법사지 거둔사지 ()

3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 원주 (☞설명패널을 참고하세요)

원주는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래의 설명문을 읽고 원주에 있었던 수운조창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고려시대 13조창의 하나로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 있었습니다. 충주의 덕흥창과 함께 내륙수운의 중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핵심 물류센터 정도가 되겠네요. 무엇일까요?



Answer

4 강원지방 행정의 중심

조선시대 각 도의 감사(관찰사)가 거쳐하며 집무를 보던 관청으로,
1395년 강원도 원주에 설치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강원감영

② 경상감영

③ 전라감영



조선시대 8도에 만들어졌던 감영 가운데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은 강원감영이 유일합니다.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모습을 간직한 귀중한 역사유산입니다.

5



이 그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잉어가 해를 향해 뛰어 오르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 지기를 원하는 꿈을 담은 그림입니다.

Answer



민화는 궁중의 화원이나 문인들이 그렸던 그림과는 다른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는데,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그림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합니다. 민화의 소재는 꽃·새·물고기·게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으며, 민화에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6

김봉룡의 대표작품을 찾아라! 빈칸을 채워보세요.

공작무늬서류함(사진) 미국 대통령 누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들었던 작품일까요?
(), 1974년

※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념선물로 만들었던 2개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선물하고 하나는 남아 우리 박물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

대통령이 타고 있어요!

누가 타던 자동차일까요? ()를 채워보세요.

대한민국 제()대
대통령 ()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 하였습니다. 1919년 원주에서 태어나 치약의 푸른 소나무처럼 청빈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